

제목: 초록이와 함께 탄소발자국을 지워요!

요약본

평소 움직이길 싫어하고, 친구들과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초등학생인 초록이(주인공)는 아빠에게 억지로 끌려와 산행을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을임에도 더운 날씨에 지친 초록이는 아빠 몰래 숲 속으로 **도망**을 간다. 아빠가 등산을 마친 후 돌아오면 함께 집에 가려고 작전을 꾸미던 초록이는 발을 헛디뎠다. 그만 언덕 아래로 미끄러진다. 길을 잃은 초록은 한참을 걷다 싱그러운 나무와 꽃이 만발하고, 동물들이 뛰어노는 자연이 아름다운 **이상한 마을에 도착**한다.

마을 곳곳을 돌아보지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용기를 내어 집 안으로 들어가 본 초록은 집집마다 다양한 물건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첫 번째 집에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다. 배가 고팠던 초록은 너무 많은 음식을 요리했고, 결국 남리게 되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뚜벅'하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만 무시한다.

두 번째 집은 전자제품이 가득한 집이다. 더위를 느낀 초록은 에어컨을 키고, 컴퓨터 게임을 시작한다. 시간이 흐른 후 초록이는 전원을 끄지 않은채 집을 나간다. 또 다시 '뚜벅'하며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세 번째 집은 샤워기가 있는 집이다. 땀을 흘린 초록은 물을 잔뜩 틀고 양치와 샤워를 한다. 문을 나설 때 자신의 발자국이 검게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네 번째 집은 보일러가 있는 집이다. 어느새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초록은 여기서 잠을 청한다. 평소 얇은 옷만 입고 자는 버릇을 가진 초록은 보일러와, 전기난로의 온도를 잔뜩 높이고 잠이 든다.

밤이 깊어지자 초록의 얼굴에 그림자가 진다. 눈을 뜬 초록은 검은 연기(온실가스)로 만들어진 괴물을 발견하고 도망간다. 문 밖의 마을은 어제와 같지 않고 황폐해져 있다.

두려움에 휩싸여 달리는 초록이 도착한 곳은 **사막**이다. 사막에서 초록은 괴물이 자신의 검은 발자국을 따라온 사실을 알아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발자국 안에는 작게 CO2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아빠와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제서야 이 발자국이 자신이 발생시킨 온실가스가 만들어낸 '탄소발자국'이 란 것을 알아챈다. 탄소발자국을 지우는 방법을 고심하던 중 옆에 있는 나무에 물을 준 순간, 나무가 쑥쑥 커지고 땀한 열매안에서 빛나는 지우개가 나온다. 초록은 자신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행동을 실천할 때 **'탄소발자국'을 지우는 '지우개'**가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초록은 자신이 왔던 길을 돌아가 '탄소발자국'을 지우기로 한다.

보일러가 있던 집에 도착한 초록은 난방온도를 낮추고, 두꺼운 옷을 입자 지우개가 생긴다. 샤워기가 있는 집에서는 수도꼭지를 꼭 잠구고, 양치컵을 준비한다. 전자제품 가득한 집에서는 에어컨을 끄고, 옷을 얇게 입는다. 그리고 컴퓨터 전원과 함께 멀티탭의 스위치도 끈다. 마지막으로 음식이 가득한 집으로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도록 모두 먹으려한다.

그 때 온실가스 괴물이 다시 나타나 초록이를 뒤 쫓는다. 놀란 초록이는 광장의 나무로 기어 오른다. 평소 **'녹색 생활'을 실천하지 못한 행동을 후회하며 지구와 나무에게 사과**한다. 초록의 눈물이 나무 잎사귀에 닿자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동물들이 활기를 찾는다. 상쾌한 바람이 한차례 불어오자 온실가스 괴물은 괴로워 하다 나무에 흡수된다. 나무에서 내려온 초록은 자연에게 감사를 표하고 잠이 든다.

잠에서 깬 초록이는 모든게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아빠에게 녹색 생활을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집으로 간다. 그 뒤로 **초록 발자국**이 생긴다.

등장인물

초록이 : 평소 움직이길 싫어하고, 친구들과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초등학생.
아빠에게 억지로 끌려와 산행을 하다 몰래 도망가다 이상한 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탄소발자국을 지우는 여행의 주인공.

아빠 : 평소 산행을 즐기며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괴물: 온실가스로 이루어진 괴물. 초록이가 발생시킨 탄소발자국을 쫓아다닌다.

※ 스토리상 계절은 콘텐츠 제작시기에 맞춰 변경한다.

학습 내용의 전문성과 난이도는 대상층에 맞춰 변경한다(CO2 몇 kg 감소등 내용을 추가
할 수 있다)

1. # 산행길.

등산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오르는 산행길. 초록의 나무 사이로 새들의 지저귐과 따사로운 햇살이 비친다. 작은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다가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의 신발을 보고 놀라 도망간다.
신발의 주인은 아빠와 함께 산에 오르는 남자 아이. 이름은 '초록'이다.

초록 헉헉. 아빠 아직 멀었어요? 대체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빠 하하하. 이 녀석. 이제 겨우 한 시간도 안 되었는데 벌써 투정이니? 주위를 둘러보렴.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 저 초록의 나뭇잎들. 얼마나 아름답니. 저기 다람쥐도 초록이와
함께 놀고 싶은 가 보다.

초록 에에~ 난 그냥 게임하고 노는 게 더 재미있는데. 그리고 너무 더워요. 이게 어떻게
봄(가을)이예요. 완전 여름이지!

아빠 음. 그래. 이제 5(10월)월인데 봄(가을)이라고 하기엔 좀 덥구나. 아빠도 점점 봄, 가을이
짧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한단다. 요새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 현상이 점점 심해진다더니 정말
몸에 와 닿는 구나. 아. 초록이도 기후변화에 대해 학교에서 들어 보았지?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특히 CO2, 메탄가스, 프레온.....응?

아빠가 고개를 돌려 초록이를 본다. 초록이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며 딴 짓을 하고 있다. 손가락으로
초록이의 이마를 튕기며(딱쿵) 설교하는 아빠.

초록 아야!

아빠 요 녀석이. 여기까지 와서 게임이니?

초록 하지만....덥고, 지루하고. 힘들고...

아빠 뭐가 지루하니. 여길 보렴. 이 색색의 꽃과 풀들이 안보이니? 여기 이건 강아지풀이라고 한단다. 그리고 이건 해당화. 아. 여기 버섯도 있구나. 이 버섯은 먹으면 안 되는...

슬그머니 뒷걸음치는 초록. 아빠 몰래 숲 안으로 도망간다.

초록 히힛. 재미 하나도 없네요 뭐. 여기서 폭~ 쉬었다가 나중에 아빠랑 만나서 집에 가면 되겠다. 그래도 걱정하실 테니 메시지는 남겨줘야지.

핸드폰으로 ‘아빠. 저 쉬고 있을 테니 걱정마시고 다녀오세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메시지를 작성하는 초록. 핸드폰 화면만 보고 걷다가 발을 헛디더 언덕 아래로 미끄러진다.

초록 우와와와와와와~!!! 아고아고. 나 살려! 우가갸갸갸!

다행히 수풀에 걸려 멈춘 초록. 흙투성이가 되어 빠져나온다.

초록 아야야야야. 큰일 날 뻔했네. 근데...여긴 어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빠를 찾아 한참을 걷는다. 점점 지쳐가는 초록. 눈물을 글썽인다.

초록 히잉. 대체 나가는 길은 어디 있는 거야. 핸드폰도 안 되고. 발은 아프고. 배도 고프고...

2. # 이상한 마을.

한참을 걷다 수풀을 헤치고 나오는 초록. 그 때 초록 가루를 머금은 바람이 눈앞을 가린다. 눈을 감았다 뜨니 나무와 꽃 그리고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작은 마을이 나타난다. 마을의 중앙에는 큰 아름드리나무가 있고, 집들은 통나무와 담쟁이 넝쿨로 뒤덮인 친환경적인 모습이다.

초록 어? 웬 마을이지? 어쨌든 살았다!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마을 곳곳을 돌아본다. 집집마다 사람이 산 흔적들이 있지만 아무도 없다. 용기를 내어 어느 한 집안에 들어가는 초록.

3. # 음식이 가득한 집.

초록 계세요? 저기 제가 길을 잃었는데...아무도 없나보네?

두리번거리다 냉장고 문을 여는 초록. 문을 여니 고기, 치킨, 피자등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다. 침을 흘리는 초록

초록 너무 배가 고프다. 에이. 일단 먹고 보지 뭐. 잘 먹겠습니다!

냉장고의 음식을 잔뜩 꺼내서 식탁에 앉아 맛있게 식사를 하는 초록. 얼마 후 배가 부른 초록은 그만 먹기로 한다.

초록 휴우우우~ 배부르다. 근데 너무 많이 남겼네. 에잇.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럼 마을을 좀 더 돌아보기로 할까?

식탁에 잔뜩 남은 음식이 클로즈업된다. 집을 나서는 초록. 순간 뚜벅 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초록 응? 내가 잘못 들었나?

4. # 전자제품이 가득한 집.

마을을 돌아보는 초록. 내려쬰는 햇빛에 더위를 느낀다. 다음집의 창문을 들여다보는 초록. 컴퓨터와 에어컨등 다양한 전자제품이 있는 집이다. 신이난 초록은 집안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다.

초록 히힛. 아빠가 찾으러 올 때까지 게임이나 하고 있어야 겠다. 일단 에어컨도 좀 키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에 시원해 하는 초록

초록 아~시원하다. 역시 에어컨이 바람맞으며 게임하는 게 최고지.

재미있게 게임을 하는 초록. 날은 점점 지고 석양이 비친다.

초록 에잇. 또 졌네. 응?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나? 아빤 왜 아직 연락이 없는 거야...나가 봐야겠다.

에어컨과 컴퓨터가 그대로 켜진 모습이 클로즈업. 초록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또 다시 뚜벅 하는 소리가 들린다.

초록 응? 아까부터 계속 발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아니겠지?

5. # 샤워기가 있는 집.

또 다시 마을을 걷는 초록. 목욕 부스와 샤워기가 있는 집을 발견한다.

초록 킁킁...휴 땀 냄새. 안되겠다 샤워부터 해야지.

샤워기에 물을 켜 채로 양취를 하고, 샤워를 한다.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물이 클로즈업.

초록 **룰룰루루~ 이제 개운해 졌군. 벌써 밤이 되어 가는데 일단 잘만한 곳을 찾아야겠다.**

문을 나서자 또다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주위를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다. 그러다가 자신의 발자국이 바닥에 검게 찍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

초록 **응? 웬 발자국이지? 신발에 흙이 이렇게 잔뜩 묻었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을 나서는 초록. 이번에는 침대와 전기난로가 있는 방을 발견한다.

6. # 보일러가 있는 집.

초록 **오늘은 여기서 잠을 자야겠다.**

두꺼운 옷과 양말을 바닥에 던지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둘러쓰는 초록. 하지만 추운지 일어나서 전기난로와 보일러를 둘 다 키고 온도를 30도에 맞춘다.

초록 **으으~ 밤이 되니 무척 춥네. 난 두꺼운 옷을 입고는 못자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자야지.**

잠에 드는 초록. 보일러와 전기난로가 클로즈업 되고, 캄캄한 밤하늘에 별뿔별이 떨어진다. 순간 멀리서 들리는 스산한 발자국 소리.

E 뚜벅. 뚜벅. 끼이익.

초록의 얼굴위에 까만 그림자가 덮인다. 뒤척이는 초록. 이상한 기운에 눈을 뜬다.

초록 **응응? 우와앗! 괴물이다!**

초록의 눈에 까만 연기로 만들어진 늑대모양의 괴물이 보인다. 초록을 위협하는 괴물. 초록은 재빠르게 문을 박차고 도망간다.

초록 **우와앗! 사람 살려!**

괴물은 연기로 된 몸을 키웠다 줄였다 하며 초록을 뒤쫓는다. 괴물이 지나간 자리가 점점 황폐해 진다. 담쟁이 넝쿨도, 새싹도, 동물들도 힘을 잃고 쓰러진다. 힘껏 도망가는 초록 어느새 날이 밝아온다.

7. # 사막.

모래사막을 걷는 초록. 내려찍는 햇살과 이따금 불어오는 황사에 힘들어 한다. 터벅터벅 걸던 초록은 허리까지 오는 작은 나무 옆에서 털썩 주저앉는다.

초록 **오아...겨우 도망쳤구나. 그 무시무시한 괴물은 뭐였지? 어떻게 날 쫓아 온 거야?**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중간 중간 검은 발자국이 찍혀있다.

초록 그래. 이 발자국을 보고 쫓아 온 거구나, (모래로 덮어 지우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다) 이걸 없애지 못하면 그 괴물에게서 계속 도망 다녀야 하는데 어떡하지...대체 왜 안 지워 지는 거야!

화가 난 초록 발자국을 유심히 본다. 발자국이 확대되면서 작은 글씨로 CO2라고 적혀있는 것을 발견한다.

초록 CO2? 이산화탄소?...

초록은 얼마 전 아빠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아빠 (초록의 머리위로 말풍선이 생기며 아빠가 나타난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도 많이 생기고 말이야. 이런 현상을 기후변화라고 하는데 그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가 꼽힌 단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가 지나치게 더워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기도 하지.

이 온난화는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 더욱 심해지는데 원래 온실가스는 적당히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불과 같아서 따뜻함을 주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전기와 자동차 등을 사용할 때, 석탄과 석유가 타며 나오는 연기는 온실가스를 너무 많이 발생시켜 지구가 심하게 더워지는 것이란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주요기체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등이 있지.

아빠의 모습이 사라지며 무언가를 깨 닫는 초록.

초록 그래. CO2는 지구를 덥게 만드는 온실가스 였어! 그럼 이 발자국은 무슨 뜻일까? 온실가스. 발자국. 이산화탄소. 발자국. 탄소 발자국...탄소 발자국?!

말풍선이 떠오르며 학교 선생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걸을 때 발자국이 생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활동이나 생산, 소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말하는 것이 바로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다고 하면, 그 음식의 재료를 키우고, 운반하고 조리할 때 발생한 탄소의 총 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환경에 미치는 수치를 나타낸 거죠.

깨끗한 환경의 지구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녹색 생활'을 실천해야 해요~

선생님의 모습이 사라지며 또 다시 깨 닫는 초록.

초록 그래. 맞아. 이건 탄소 발자국 이었어! 내가 발생시킨 온실가스의 흔적인 거야! 이걸 보고 괴물이 나를 따라 왔구나. 에잇. 지워져라 지워져!

발자국을 지우려 문지르는 초록.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초록 지워지질 않네. 어떡하면 되는 거지?

내려 쬔는 햇볕이 더워 물통을 꺼내 물을 마시는 초록. 그러다 문득 자신 옆의 작은 나무를 발견한다.

초록 너도 덤겠지? 자. 물이야 마셔.

작은 나무에 물을 주자 상쾌한 바람과 함께 나무가 갑자기 무럭무럭 자란다. 놀라는 초록. 나무는 어느새 큰 아름드리나무가 되었다.

초록 우와아~ 갑자기 어떻게 된 거지?

가까이 다가가는 초록. 그때 나무에 맺힌 빨간 열매가 열리더니 빛나는 지우개가 초록의 머리위로 떨어진다.

초록 응? 이게 뭐지? 지우개인가....어디. 이걸로 한번 지워보자.

지우개로 탄소발자국을 지우는 초록. 지우개가 사라지면서 발자국은 지워지고 사막이었던 주변에 풀이 뒤덮인다.

초록 지워졌다! 어떻게 된 거지?....그래!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했어. 내가 준 물로 나무가 자라서 탄소발자국을 없앤 거야!

자리에서 뛰며 기뻐하는 초록.

초록 알았다! 알았어! 지금부터 내가 만든 탄소발자국을 지우러 가는 거야! 그럼 더 이상 괴물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겠지. 그럼 출발!

8. # 황폐해진 마을(보일러가 있는 집)

도망쳐온 길을 다시 돌아가 원래의 마을로 돌아온 초록.

초록 음.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

어젯밤 도망쳐 나온 집 앞에 자신의 ‘탄소발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초록 저기다!

방안에 들어서는 초록. 밤새 켜둔 온기에 뜨거움을 느낀다.

초록 **후. 방이 지나치게 덥구나. 여기서 내 탄소발자국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잠시 시간을 주어 시청자들이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초록 **그래. 옷을 따뜻하게 입고, 양말도 신으면 이렇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와 전기난로를
세게 틀지 않아도 되었는데 말야. 자. 그럼 어디 한번!**

보일러와 전기난로의 온도를 20도로 낮추고, 바닥에 던져둔 따뜻한 옷과 털양말을 신는다.

초록 **짠! 나와라 탄소지우개!**

초록의 말과 함께 상쾌한 바람이 불더니 두꺼운 외투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자 지우개가 있다. 지우개로 지우니 지우개와 함께 탄소발자국이 사라진다.

초록 **하하! 그럼 다음 장소로 GOGO~!**

9. # 샤워기가 있는 집

이동하여 샤워를 했던 집으로 이동한 초록. 문을 열자 줄줄줄 하며 들리는 물소리가 들린다.

초록 **음. 여긴 내가 샤워를 했던 곳이야. 어떻게 하면 나의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까.**

(잠시 시간을 주어 시청자들이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초록 **어이쿠. 내가 물을 꼭 안 잠갔었구나. 게다가 어젯밤엔 샤워기 물을 튼체 로 양치도 했지.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낭비 했어.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도 많은 에너지가
들텐데...이제부터 빨리 씻고 물을 최대한 아껴야 겠다!**

수도꼭지를 꼭 잠그고, 양치를 위한 컵을 세면대에 두는 초록.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생기면서 그 안에 지우개가 나온다. 기뻐하는 초록. 지우개로 탄소발자국을 지운다.

10. # 전자제품이 가득한 집.

발자국을 따라 다음 집에 도착한 초록. 에어컨과 컴퓨터가 있던 집이다.

초록 **자. 어떻게 할까?**

(잠시 시간을 주어 시청자들이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초록 그래 맞아. 에어컨은 선풍기 30대를 켜놓은 만큼 전기가 많이 쓰인다고 했지. 에어컨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시원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겠다.

두꺼운 외투를 벗고 반바지 차림이 되는 초록. 열음을 수건에 싸서 열을 식힌다.

초록 으아~ 시원하다. 맞다! 컴퓨터를 너무 오래 켜 두었지!

컴퓨터의 모니터와 전원을 끄는 초록.

초록 맞아. 사용을 하지 않을 땐 멀티 탭의 스위치도 꺼두는게 좋다고 했어. 사용을 안 하더라도 대기 전력이 라는 것이 생긴다고 했지.

멀티탭의 스위치 까지 끄는 초록. 상쾌한 바람과 함께 멀티탭에서 지우개가 튀어 나온다. 지우개로 탄소 발자국을 지운 초록.

초록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11. # 음식이 가득한 집.

드디어 첫 번째 발자국이 생긴 음식을 먹던 집에 도착한 초록. 마을에도 조금씩 풀과 꽃이 다시 자라고 있다. 신나게 문안으로 들어간다. 식탁위에는 아직도 먹음직스런 음식이 가득하다.

초록 여기가 마지막이야. 어떻게 하지?

(잠시 시간을 주어 시청자들이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초록 그래.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했어.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에너지와 음식이 분해되며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결국 온난화의 주범이 되겠지.

꼬르륵 소리와 함께 배가 고파진 초록

초록 마침 잘됐다. 배도 고팠는데 다 먹어버려야지. 잘 먹겠습니다!

음식을 막 먹으려는 찰나 창문너머로 자신을 노려보는 온실가스로 이루어진 괴물이 보인다.

초록 으악! 온실가스 괴물이다!

우당탕거리며 도망가는 초록. 그 뒤를 쫓아오는 괴물. 결국 마을 중앙의 아름드리 나무위로 기어 올라간다.

뒤따라오던 괴물. 점점 몸집을 불리며 초록을 위협한다.

괴물 **탄소를 내놔라. 온실가스를 내놔라. 지구를 뜨겁게 만들어야 해. 으하하하~**

두려움에 덜덜 떠는 초록 나뭇가지에 몸을 의지한 채 눈물을 흘린다.

초록 **흑흑. 무서워. 내가 '녹색 생활'을 실천했다면 저 괴물이 저렇게 커지진 않았을 텐데. 지구야 미안해. 나무야 미안해!**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는 초록. 초록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나무의 잎사귀에 닿자 빛과 함께 나무 전체에서 열매가 열린다. 그 열매에서 나온 초록빛깔의 가루가 마을을 뒤덮고 뒤덮자 마을 전체에서 꽃이 개화 하고, 호수가 빛나며 동물들이 활기를 찾아 뛰어다닌다.

꽃가루, 상쾌한 바람. 새의 지저귀이 들리자 온실가스 괴물을 괴로워하다 나무에게 흡수되어 사라진다. 나무에서 내려온 초록. 피로로 인해 나무에 기대 주저앉는다.

초록 **고마워. 너희가 나를 지켜 주었구나. 나무야. 물아. 동물 친구들아. 고마워. 앞으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약속해...**

잠에 빠져드는 초록

12. # 길을 잃었던 숲.

아빠 **초록아. 초록아?**

아빠의 목소리에 눈을 뜬 초록. 눈을 뜨니 아빠가 웃으며 바라보고 있다.

초록 **아빠~~~!**

아빠 **허허~ 이 녀석. 여기서 잠이 들면 어떡하니?**

초록 **저 어떻게 찾으셨어요? 제 탄소발자국을 찾아 오신 거예요? 온실가스 괴물은요? 내 친구들은요?**

아빠 **하하하~ 꿈을 꾸었나 보구나.**

주위를 둘러보는 초록. 처음 아빠와 헤어졌던 장소이다. 어리둥절해 하는 초록

아빠 **자. 이제 그만 내려가자꾸나. 엄마가 걱정하시겠다.**

아빠와 손을 잡고 내려가는 초록.

초록 아빠. 저 이제 녹색 생활로 탄소 발자국을 지울꺼예요.

아빠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서는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하는 일이지.

초록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음식도 안남기고 안 쓰는 전원은 끄고, 샤워도 짧게 하고...

아빠 하하하~ 그래그래.

두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그 뒤로 초록의 발자국이 따라 찍힌다.